

이상원 | 부전문위원 (제 6069)

- 주요 뉴스: 미국 고용지표, 오미크론 변이 등장 전부터의 회복 둔화 시사
 -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베트남·대만 심층분석대상국 유지
 - 주요국(미국, 유로존, 중국 등)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 둔화 징후
 - 美 연준 주요 인사,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주장 지속
 - 국제금융시장: 테이퍼링, 오미크론 우려에 고용부진이 가세하면서 Risk-off
주가 하락[-0.8%], 달러화 보험[-0.01%], 금리 하락[-10bp]
 - 주가: 미국 S&P500은 고용부진에도 테이퍼링 가속화 전망이 유지되면서 하락
유로 Stoxx600 지수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통화(장세)/비안전통화(약세) 간 뚜렷한 대비 속에 보험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1%,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수요가 집중되면서 큰 폭 하락
독일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2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184.3원) 0.3% 상승, 한국 CDS(21p) 보험

		12/3일	12/2일	전일대비			12/3일	1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38.4	4,577.1	-0.84%	국채 금리 10y	미국	1.34%	1.44%	-10bp
	유럽	462.77	465.44	-0.57%		독일	-0.39%	-0.37%	-2bp
	중국	3,607.4	3,573.8	0.94%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8,030	27,753	1.00%		중국	53bp	54bp	-1bp
	한국	2,968.3	2,945.3	0.78%	위험 지표	EMBI+	405bp	401bp	4bp
환율	달러지수	96.15	96.16	-0.01%		VIX	30.67	27.95	9.73%
	유로화	1.1315	1.1301	0.12%		WTI유	66.26	66.50	-0.36%
	엔화	112.80	113.11	0.27%	원자재	구리	426.65	429.90	-0.76%
	위안화	6.3764	6.3771	0.01%		금	1,783.3	1,768.7	0.82%
	원화	1,180.1	1,175.9	-0.3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고용, 오미크론 변이 등장 전부터의 회복 둔화 시사

- 노동통계국,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21.0만명 증가(10월 +54.6만명, 예상치 +55.0만명), 실업률은 4.2%(10월 4.6%, 예상치 4.5%)를 기록했다고 발표
- 노동자의 시장 복귀, 비자발적 파트타임 고용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고용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공존(Indeed). 오미크론 변이 등장 전부터 노동시장 회복이 둔화되고 있었음을 시사. 단, 연준 테이퍼링 가속화 계획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예상(Capital Economic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베트남·대만 심층분석대상국 유지

- 재무부는 '21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 시장 개입에서 모두 기준치를 넘은 베트남·대만을 금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으로 놓고 양자협의를 지속했으나 환율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

■ 전세계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 둔화 징후

- 3일 미국(10월 58.7 → 11월 58.0_{예상치 57.0}), 유로존(54.6 → 55.9_{56.6}), 중국(53.8 → 52.1_{53.0}) 등 주요국 서비스업 PMI가 발표된 가운데, 대체로 전월대비 낮아지거나 예상치 하회
- IHS Markit은 대체로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단기적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설명

■ 美 연준 주요 인사,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주장 지속

-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경제 성장이 강하며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음 FOMC에서 위원들은 완화 정책을 더 빨리 거두고 싶어할 것이라고 전망.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영향을 평가하기 너무 이르다고 부언

■ 유럽중앙은행(ECB), 장기 통화정책 방향 제시 지연 가능성

- 라가르드 총재, 여전히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12/16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장기적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는 피할 수 있다고 언급

■ 영란은행(BOE),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금리인상 주장 약화

- 11월 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에 투표했던 마이클 손더스 정책위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고 언급

■ 중국 금융규제 당국*, 장외 파생상품 거래 규제 강화

* 중국인민은행(PBOC),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외환관리국(SAFE)

- 중국인민은행 등은 은행과 보험사가 개인 및 기업(비헷지 목적인 경우)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규제안을 공개

■ 터키, 인플레이션을 3년 만에 20%대 재진입

- 통계연구소(TURKSTAT), 터키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3%_{yoy}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18.11월(2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 Reuters는 최근 리라화 급락(9/23일~ 37.4%)을 유발한 정책금리 인하(9/23일~ -4%p)의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라고 보도

■ 인도 정부,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편성 추진

- 인도 정부, 의회에 '22년 3월로 끝나는 금번 회계연도 내 무료 식량 배급, 농촌 일자리 지원을 위해 편성한 \$398.7억 규모 추가 지출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환율안정조치 가능성 시사

- 와리지요 총재,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 시 주저 않겠다고 언급. 인플레이션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 부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비농업고용: 21.0만명, 10월(54.6만명), 예상치(55.0만명)
- 미국 11월 실업률: 4.2%, 10월(4.6%), 예상치(4.5%)
- 중국 11월 Caixin 서비스업 PMI: 52.1, 10월(53.8), 예상치(53.0)

■ 주요 경제 이벤트(12/6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브로드벤트 부총재 경제·통화정책 전망 관련 연설 등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